

# 스트레스 및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아내구타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엽\*\* / 최수찬\*\*\*

## I. 서론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의 평등,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의 평등에 위배되는 요인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그러나 세계 여성 약 3명 중 1명은 여전히 강간이나 구타, 각종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재호 2003).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 사회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제이며,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

세계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선포와 ‘유엔여성 10년(1976-1985)’ 선포를 통해서였다.

---

\* 본 연구는 2002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aeyop@yonsei.ac.kr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choisc@yonsei.ac.kr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 부문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아동 기구 등의 단체들은 대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각 국가에 요구하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여 국가적 개입 없이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구타와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폭력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사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가정폭력의 원인과 결과, 예방과 대책 등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관련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경을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하는 가정폭력의 본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종교나 문화적인 전통에 기인한 가정폭력은 묵인될 수 있다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절대적인 인권은 시공을 초월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간의 접합점을 모색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의 가정폭력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의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원인 및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재업 외(1999)의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여 사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슬람문화권의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폭력발생의

주요 원인 또한 단순한 가난이나 교육의 부재가 아닌 남성우월적 지배와 권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어 왔다(임한순 2000). 이는 사회구조적 측면 뿐 아니라 한 사회에 팽배한 남성우위적인 시각이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아내구타의 공통적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유교나 이슬람교 등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이고, 성역할 구분이 엄격하며, 서구에 비해 산업화가 뒤늦게 진행되어 전통사회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아내구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애정과 지지를 제공하지만 가족구성원 간에 갈등과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개인은 가족구성원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방법으로 종종 가정폭력이 유발되기도 한다. 결국 스트레스는 가정 내 폭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김재엽 외(1999)는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내구타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는 개인의 기질,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역할 태도와 더불어 각국에서 발생하는 아내구타의 공통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우월적인 시각이나 태도,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 등은 가정 내 아내구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가정 내 아내폭력을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하여, 아내폭력을 감소하기 위한 개입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가정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정신병리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자원-교환이론, 공격-좌절이론, 스트레스이론, 성역할이론, 여권론적 이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김재엽 외(1999)가 주안점으로 삼았던 스트레스이론 및 성역할이론을 중심으로 아내구타와의 연관성을 선행문헌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 1. 스트레스와 아내구타

아내구타를 설명하기 위한 스트레스이론은 아내구타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를 가족 내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Farrington(1980)은 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킬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을 때 가정 내 폭력을 그 대안의 하나로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traus et al.(1990) 역시 사회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정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가정보다 부부간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편의 아내구타율은 38.1%로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편의 아내구타율 12.9%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각한 아내구타에 있어서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편의 아내구타율은 11.0%로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편의 아내구타율보다 3배 정도 높았다(김재엽 1998d).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스트레스가 가정폭력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남편의 스트레스 정도는 아내구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성역할태도와 아내구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가정폭력과의 연관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성역할태도와 아내구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아내에게 구타를 행사한 남편은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여성의 성역할에 대하여 가부장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흔하다(Rosenbaum & O'leary 1981; Whiteharst 1974). Saunders(1992)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역할에 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한 가부장적 가해자들이 전반적으로 폭력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가장 심각한 수준의 폭력까지도 빈번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수 외 2000. 재인용).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가부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와 아내구타를 행사하는 비율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변화순 외 1999; 김재엽 1998c). 한편, 학대남편에 대한 조사들에 의하면 가해남성들이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 외 2000).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인 의식을 갖고 남녀의 고정된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것이 아내에 대한 불평등한 의식과 아내구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내구타

한 구성원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원의 소유 정도는 그 구성원이 당면하는 문제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이혼 신청자들은 신체적 학대를 이혼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vinger 1974).

반면 김재엽 외(1999)는 가정폭력이 특정한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나, 다만 저소득 계층에서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은 이들이 가정폭력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아내구타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연령

Suitor et al.(1990)은 미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전국 조사에서 연령과 아내구타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령이 낮은 집단이 중년이나 노년 집단에 비해 폭력률이 높았고, 부부 상호간의 폭력 비율 또한 높았다. 그러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1998c)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아내구타 간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과 아내구타 사이에는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 2) 학력

선행연구에서 학력과 가정폭력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보다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보고들과 학력이 높을수록 폭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Steinmetz(1977)와 Gelles(1974)는 남편의 학력수준과 폭력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을 밝히고 있으나, Rounsaville(1978)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Hornung(1981)과 Kim(1993)은 남성의 교육수준과 폭력 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수준과 아내구타 사이에는 일관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3) 직업

직업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보다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실업상태 혹은 시간제 고용상태에 있는 남성이 완전 고용에 있는 남성보다 폭력이 심하였고, 생산직 노동자들이 사무직 노동자들보다 2배 이상 높은 폭력률을 보였다(Straus 1980). 그러나 재미 한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Kim(1993)의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나 유형이 부부폭력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소득수준

소득과 부부폭력과의 관계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와 부부폭력이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Dibble과 Straus (1980)는 여타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남편들이 아내 통제에 대한 일환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Straus(1980)의 조사에서도 저소득층 가족의 폭력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m(1993)과 김재엽(1998b)의 연구에서는 부부폭력과 소득수준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부부폭력 문제가 저소득층에만 심각하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과부장적인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아내구타 간에도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과 성역할태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아내구타 여부를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와 영향 정도를 통계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아내구타 실태와 아내구타의 주요 요인으로 예상되는 스트레스, 성역할태도 등의 변인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양국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반한 연구문제에 대한 요약이다.

- (1)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아내구타 발생률은 어떠한가?
- (2)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은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스트레스는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4) 성역할태도는 아내구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각각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측정도구

##### 1) 아내구타 척도

본 연구에서 ‘아내구타’는 부부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 행위 중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Straus(1979)의 갈등관리행동척도(CTS: Conflict Tactic Scale)를 적용하였다. CTS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서 가족의 폭력 또는 구타를 측정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척도는 부부 간의 갈등관리를 위



해 표현되는 행동들을 3가지 수준, 즉 이성적 행동, 언어적 공격, 폭력적 행동으로 나누어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TS를 조사대상국의 문화에 맞도록 수정하여, 이성적 행동 1문항, 언어적 공격 1문항, 폭력적 행동 8문항을 질문하도록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폭력적 행동에 해당하는 8문항 중 상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의 문항을 제외한 7문항을 Straus et al.(1980)의 분류에 따라서 경미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미한 폭력은 '①상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②세계 밀쳤다 ③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심각한 폭력은 '①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②물건(책대,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③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④칼(가위)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7899와 .8863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 2) 스트레스 척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스트레스의 유발요인(stressors), 증상 혹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stress),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상 혹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아내구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Abell(1991)이 사용한 임상스트레스지수(ICS: Index of Clinical Stress)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ICS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총 25문항 가운데 조사대상국에 맞도록 수정하여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들은 특정 스트레스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

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들로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척도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811과 .8054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 3) 성역할 태도 척도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는 조사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남성우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고,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 성에 따른 지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믿는 태도를 본 연구에서의 '성역할 태도'로 정의하기로 한다.

성역할태도는 Spence와 Helmreich(1978)가 고안한 대여성태도척도(AWS: Attitude toward Wome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문항으로 구성된 AWS를 번안하고 조사대상국의 문화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총 7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했다. 본 척도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078과 .7529로 역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 3.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내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조사대상국의 아내구타 발생 실태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가 상당한 남성중심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회교도인 것에 기인한다. 또한 중동의 회교도 국가들에 비해 조사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지만, 사실 인도네시아는 인구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회교국이다.

조사지역인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Java) 지방의 족자카르타(Yogyakarta)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최밀집 지역인 자바섬의 전통과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곳이다. 2001년 현재 이곳의 인구는 약 35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동’ 단위 개념의 행정구역내 가구수를 그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고, 각 동의 가구를 다시 단순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한 후 200개 가구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훈련된 현지 조사원들이 조사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남편들을 대상으로 1:1 면접을 통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조사원들은 사전에 조사방법 및 내용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받았으며, 각자에게 할당된 지역으로 파견되어 대상자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난 1년간 가정에서 발생한 아내구타를 알아보기 위해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거, 결혼, 별거 상태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176명의 남성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6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0개 사례에 대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가정의 아내구타 현황은 한국 가정의 폭력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김재엽 외(1999)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자는 우리나라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표본수를 전국의 세대수 비율에 맞게 책정하였고, 권역별로 ‘구’, ‘시’ 또는 ‘도’를 집락의 단위로 추출하였다. 이후, 비례에 따라 정해진 각 집락의 세대수에 따라 단순무작위 추출로 전국에서 1,542 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1999년 8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원은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조사원들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

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542부의 사례 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자를 남편으로 제한한 결과 총 649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가정폭력실태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부 자바 지방의 족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인도네시아의 모든 가정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역의 특성상 농업종사 인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 농업종사자 5인(1.3%)과 우리나라 농업종사자 12명(1.9%)은 극소수에 불과해 직업형태와 관련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동일한 분석방법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동시에 적용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1999년도에 2차 자료를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2003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였기에 약 5년간의 시차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한국인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체제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것이나,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것이기에 양국 간의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아내구타는 가정 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은밀한 성격을 지니고, 외부로의 노출 또한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사실보다 축소해서 응답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7.6%, 50대가 24.1%로 절반 이상이 40-50대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20대는 10.6%, 60대 이상은 4.1%에 불과했다.

<표 1> 인도네시아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18	10.6
	30대	57	33.5
	40대	47	27.6
	50대	41	24.1
	60대 이상	7	4.1
	계	170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	9.9
	고졸	50	35.2
	전문대졸	14	9.9
	대졸 이상	64	45.1
	계	142	100.0
직업형태	생산직	46	34.3
	사무직	88	65.7
	계	134	100.0
소득수준	50만 Rp. 미만	28	20.4
	50만 Rp. 이상 100만 Rp. 미만	45	32.8
	100만 Rp. 이상 150만 Rp. 미만	29	21.2
	150만 Rp. 이상 200만 Rp. 미만	18	13.1
	200만 Rp. 이상	17	12.4
	계	137	100.0

주: 각 변인별 무응답자는 제외 처리함.

〈표 2〉 우리나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59	9.1
	30대	222	34.2
	40대	204	31.4
	50대	113	17.4
	60대 이상	51	7.9
	계	649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99	15.4
	고졸	280	43.7
	전문대졸	53	8.3
	대졸 이상	209	32.6
	계	641	100.0
직업형태	생산직	386	67.1
	사무직	189	32.9
	계	575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33	21.2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87	29.8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8	22.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01	16.1
	250만원 이상	69	11.1
	계	628	100.0

주: 각 변인별 무응답자는 제외 처리함.

인도네시아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9.9%, 고졸이 35.2%로 나타나 전체의 45.1%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졸자가 9.9%, 대졸자 이상이 45.1%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유사하게 조사대상자의 직업 역시 사무직이 67.1%, 생산직이 32.9%로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 소득은 '50만 루피아 이상 100만 루피아 미만'인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고, '100만 루피아 이상 150만 루피아 미만'인 경우와 '50만 루피아 미만'인 경우가 각각 21.2%와 20.4%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이

에 조사대상자의 대다수(74.4%)는 월 소득 150만 루피아 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0만 루피아 이상 200만 루피아 미만'의 경우와 '200만 루피아 이상'의 경우는 각각 13.1%와 12.4%를 차지하였다.<sup>2)</sup>

한편, 김재엽 외(1999)가 실시한 한국 측 조사대상의 연령은 다음의 <표 2>에서와 같이 30대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1.4%, 50대 17.4%로 나타났다. 한편 20대는 9.1%, 60대 이상은 7.9%였다. 조사대상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3.7%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는 15.4%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8.3%, 대졸 이상 32.6%로 조사대상 중 41%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은 생산직 67.1%, 사무직 32.9%로 생산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2. 조사대상자의 아내구타 실태

가정 내 부부폭력 중 아내구타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 행위이다. 이러한 아내구타는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심각한 신체적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가정에서 조사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아내구타는 조사대상자의 16.7%로, 이는 6명당 1명의 비율로 아내구타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아내구타의 대부분은 경미한 폭력—아내에게 물건 던지기, 세계 밀치기, 손바닥으로 뺨 때리기 등—에서 일어났다. 반면 심각한 폭력은 7.1%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 14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아내구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율은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Straus et al.(1990)은 폭력 행사자들이 자신의 폭력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는 경향

2) 2004년 7월 30일 현재 인도네시아 10만 루피아 = 12,730원(한국은행 환율공시)

〈표 3〉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아내구타 발생률 비교

폭력유형	구타발생률	
	인도네시아(%)	한국(%)
전체폭력	16.7	29.5
경미한 폭력	14.9	28.7
1. 아내에게 물건 던지기	6.6	19.4
2. 세계 밀치기	9.5	20.2
3. 아내 뺨 때리기	8.3	10.9
심각한 폭력	7.1	8.9
1.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2.4	7.2
2. 물건(현대, 몽둥이 등)으로 때리기	1.8	2.6
3. 사정없이 마구 때리기	7.1	2.7
4. 목을 졸랐다	0.6	1.7
5. 칼이나 흉기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기	0.6	1.1

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을 보고한 비율은 최소한의 비율이며, 이 경우 실제 폭력률은 최소 2배 이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가정에서의 아내구타율은 조사된 16.7%보다 상당 수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가정과 한국 가정에서 발생한 아내구타율 비교는 <표 3>에서 요약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아내구타 발생률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CTS를 사용한 김재엽 외(1999)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한국 가정에서의 아내구타 발생률은 29.5%로 약 3.5명당 1명이 아내구타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내폭력 발생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약 1.8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미한 폭력 발생률의 경우 역시 한국은 28.7%로, 14.9%를 나타낸 인도네시아보다 대략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심각한 폭력은 조사대상국 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실태

본 연구에서는 아내폭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가정의 남성들은 ‘극도로 긴장감을 느꼈다’,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하였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등의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전혀 없음=1, …, 항상 그렇다=5’ 점을 부여하여 10개 항목을 종합한 결과 총합의 평균은 17.88로 나왔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가정 남성들의 스트레스 실태는 다음의 <표4>에서 비교하였다. 인도네시아 가정 남성들의 스트레스 평균은 17.88인 것에 비해 한국 가정 남성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20.02로 나타나 한국가정 남성들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스트레스 평균값을 비교한 t-분석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 남성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t=-3.961$ ;  $df=814$ ;  $p<.001$ ).

<표4>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스트레스 실태 비교

문 항	인도네시아	한 국
1. 극도로 긴장감을 느꼈다	2.38	2.44
2.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1.81	2.44
3.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였다	2.33	2.43
4.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었다	1.36	2.00
5. 나를 안정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1.86	1.93
6.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2.19	2.11
7.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2.23	2.05
8.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1.02	1.41
9. 너무 공포스러웠다	1.38	1.39
10. 좌절감을 느꼈다	1.32	1.81
평 균	17.88	20.02

한편, 스트레스 증상에 있어 한국 남성들이 인도네시아 남성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매우 신경질적이었다’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언가 부수고 싶었다’, ‘좌절감을 느꼈다’ 등이 많았는데, 이는 스트레스 증상에 있어 파괴욕구나 좌절감이 한국 남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 실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기본적으로 남성우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고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 성에 따른 지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태도를 말한다.

다음의 <표 5>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남성들의 성역할태도 평균점수는 각각 16.73과 18.14이며, 두 집단 간 성역할태도에 대한 t-분석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5.346$ ;  $df=814$ ;  $p<.001$ ). 이에 한국 남성들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부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고, ‘사회적으로 리더는 남자’이며 ‘집안일은 아내가 전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남성들은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남자’,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 등의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한국 남성들에 비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 성역할 태도 실태

문항	인도네시아		한국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38,8	61,2	79,8	20,2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49,4	50,6	73,3	26,7
성 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14,1	85,9	46,4	53,6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55,0	45,0	61,5	38,5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25,6	74,4	42,5	57,5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이지 말 것이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51,2	48,8	48,2	51,8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업)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2,9	77,1	30,7	69,3
평 균	16,73		18,14	

주: 평균값이 클수록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임.

## 5.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인 변수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각각의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아내구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을 투입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델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해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전체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odel Chi-Square=4.351; Sig.=.361). 또한 ‘경미한 아내구타’와 ‘심각한 아내구타’를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동일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표6>와 <표7>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아내구타를 통계적으로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다.

<표 6>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경미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한 국			
Goodness of Fit	.479				.846			
Model Chi-Square	Chi-Square		Sig.		Chi-Square		Sig.	
	2,789		.594		14,696		.005**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493	-.708	.590	.230	.999	-.001	.196	.997
교육수준	.757	-.279	.573	.627	.496	-.701	.235	.003**
직업	.612	-.491	.579	.397	.922	-.081	.230	.724
소득	1,218	.197	.627	.753	1,244	.218	.190	.252

주: \*\*p<.01

<표 7>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심각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한 국			
Goodness of Fit	.992				.945			
Model Chi-Square	Chi-Square		Sig.		Chi-Square		Sig.	
	11,791		.619		8,727		.068#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000	-19,336	5751,42	.997	1,037	.036	.348	.918
교육수준	.904	-.101	.825	.902	.430	-.844	.454	.063#
직업	.473	-.748	.862	.386	.669	-.402	.453	.374
소득	.991	-.010	1,001	.992	1,185	.170	.332	.609

주: #p<.1

한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남성의 ‘전체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데 인구사회학적 변인 모형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Model Chi-Square=13.374; Sig.=.010). 이는 ‘경미한 아내구타’를 종속변수로 두고 동일한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표 6>에서와 같이 독립변수 중 특히 교육수준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의 경우일수록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아내구타를 많이 발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7>의 ‘심각한 아내구타’의 경우 Model Chi-Square는 일반적 수준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6.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아내구타’, ‘경미한 아내구타’, ‘심각한 아내구타’ 각각을 종속변수로 두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변인을 함께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Model Chi-Square=7.081; Sig.=.215), 한국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Model Chi-Square=33.035; Sig.=.000). 독립변수와 ‘전체 아내구타’와의 관계는 ‘경미한 아내구타’의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미한 아내구타’와 ‘심각한 아내구타’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의 <표 8>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트레스가 ‘경미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Model Chi-Squar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본 모델이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는 유의미하였으며, 독립변수 중 특히 교육수준과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한국 남성일수록 아내에게 구타를 빈번히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스트레스가 경미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한 국				
	Chi-Square	Sig.	Exp(B)	B	S.E.	Sig.	Exp(B)	B	S.E.
Goodness of Fit	.338				.370				
Model Chi-Square	4.179				32.505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516	-.661	.598	.269	.990	-.010	.200	.958	
교육수준	.845	-.168	.585	.774	.490	-.714	.239	.003**	
직업	.639	-.448	.582	.442	.946	-.056	.234	.812	
소득	1.195	.178	.628	.777	1.197	.180	.193	.352	
스트레스	1.893	.638	.546	.243	2.180	.779	.186	.000***	

주: 스트레스 1=각국 스트레스 평균 미만, 2=각국 스트레스 평균 이상.

\*\*p<.01, \*\*\*p<.001

<표 9> 스트레스가 심각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한 국				
	Chi-Square	Sig.	Exp(B)	B	S.E.	Sig.	Exp(B)	B	S.E.
Goodness of Fit	.999				.078#				
Model Chi-Square	17.641				13.803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000	-19.191	5403.79	.997	1.028	.028	.350	.937	
교육수준	1.288	.253	.890	.776	.432	-.840	.457	.066	
직업	.418	-.873	.898	.331	.688	-.374	.456	.411	
소득	1.049	.048	1.005	.962	1.127	.119	.334	.721	
스트레스	9.632	2.265	1.132	.045*	2.091	.738	.333	.027*	

주: 스트레스 1=각국 스트레스 평균 미만, 2=각국 스트레스 평균 이상.

#p<.1, \*p<.05, \*\*p<.01

한편, 스트레스가 심각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은 <표 9>과 같다. 심각한 아내구타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모형이 심각한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두 국가 모두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각 국

가 남성들의 스트레스가 평균 수준 이상일 때 심각한 아내구타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도 부합된다. 즉, 한국 빈곤가정의 아내구타에 관한 연구(김재엽 1998a)에서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인도네시아와 한국 남성 집단 간에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후자가 전자보다 그 정도가 높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아내구타’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가정에서는 남성의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한국 가정의 남성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인도네시아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아내구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 아내구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7.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앞에서와 같이 종속변수 중 ‘전체 아내구타’와 ‘경미한 아내구타’는 그 결과가 유사하여 ‘경미한 아내구타’와 ‘심각한 아내구타’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10〉 성역할태도가 경미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한 국			
	Chi-Square		Sig.		Chi-Square		Sig.	
Goodness of Fit	.069				.710			
Model Chi-Square	3,193		.670		23,716		.000***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478	-.737	.593	.214	.971	-.029	.199	.883
교육수준	.729	-.316	.580	.586	.503	-.687	.238	.004**
직업	.564	-.573	.594	.335	.914	-.090	.233	.699
소득	1,213	.193	.627	.758	1,167	.155	.193	.423
성역할태도	.703	-.352	.557	.527	1,743	.556	.186	.003**

주: 성역할태도 1=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미만, 2=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이상.

\*p<.05, \*\*p<.01, \*\*\*p<.001

먼저 <표 10>은 성역할태도가 ‘경미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Model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나, 한국은 유의미하게 나타나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인도네시아의 경우 남성들의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과 함께 남성들의 성역할태도가 ‘경미한 아내구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평균 성역할태도보다 높을 경우, 다시 말해 남성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아내구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가 ‘심각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과 같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 Model Chi-Squar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아내구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적합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성역할태도가 ‘경미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아내구타’ 역시 교육수준과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역할태도가 심각한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한 국			
	Chi-Square	Sig.	Chi-Square	Sig.				
Goodness of Fit	.793				.752			
Model Chi-Square	13.390	.020*	17.765	.003**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000	-19.292	5685.78	.997	.968	-.032	.356	.928
교육수준	1.034	.034	.834	.968	.440	-.821	.463	.077#
직업	.708	-.345	.898	.701	.661	-.414	.460	.368
소득	.974	-.026	.989	.979	1.059	.058	.336	.864
성역할태도	3.120	1.138	.941	.227	2.753	1.013	.350	.004**

주: 성역할태도 1=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미만, 2=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이상.

#p<.1, \*p<.05, \*\*p<.01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되는 것으로, 성역할 태도를 다른 척도로 측정된 빈곤가정의 아내구타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지배형이 평등형에 비해 아내구타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재엽 외 1997). 즉, 아내구타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 즉 남편지배형의 성역할 태도유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심각한 아내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다만 ‘경미한 아내폭력’을 포함한 일반적 아내구타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가정의 남성들이 더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 아내구타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변화할 수 있는 실천적 접근이 요청된다.

### 8. 아내구타에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및 성역할태도를 모두 고려할 경우 각 변인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앞서서와 같이 ‘경미한 아내구타’와 ‘심각한 아내구타’만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다중공선성 통계치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통해 진단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우 모두 VIF값이 3이하이고, 허용치가 .25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독립 변수 간 상호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독자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표 12〉 경미한 아내구타에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

Goodness of Fit	인도네시아				한 국			
	Chi-Square		Sig.		Chi-Square		Sig.	
Model Chi-Square	4,677		.586		41,866		.000***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498	-.698	.601	.246	.964	-.036	.202	.858
교육수준	.808	-.213	.592	.719	.500	-.692	.243	.004*
직업	.581	-.543	.598	.364	.937	-.065	.237	.783
소득	1,198	.181	.628	.773	1,124	.117	.196	.551
스트레스	1,936	.661	.548	.228	2,212	.794	.188	.000***
성역할태도	.673	-.396	.560	.484	1,778	.576	.189	.002**

주: 스트레스 1=각국 스트레스 평균 미만, 2=각국 스트레스 평균 이상; 성역할태도 1=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미만, 2=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이상.

\*p<.05, \*\*p<.01, \*\*\*p<.001

먼저 인도네시아 남성대상의 분석 결과 ‘경미한 아내구타’에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본 모형이 아내구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미한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스트레스, 성역할태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경미한 아내구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각한 아내구타’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13>에서와 같이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 Model Chi-Square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심각한 아내구타’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스트레스가 평균보다 높을 경우 심각한 아내구타를 보다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심각한 아내구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각한 아내구타가 더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심각한 아내구타에 각 변인이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한 국			
	Chi-Square	Sig.			Chi-Square	Sig.		
Goodness of Fit	.992				.046*			
Model Chi-Square	18.856	.004**			22.775	.001**		
독립변수	Exp(B)	B	S.E.	Sig.	Exp(B)	B	S.E.	Sig.
연령	.000	-19.140	5394.11	.997	.974	-.027	.358	.941
교육수준	1.338	.291	.892	.744	.455	-.787	.465	.090#
직업	.623	-.473	.947	.618	.668	-.403	.460	.381
소득	1.067	.065	1.018	.949	1.018	.017	.338	.959
스트레스	9.122	2.211	1.134	.050*	2.094	.739	.335	.028*
성역할태도	2.855	1.049	.986	.287	2.753	1.013	.351	.004**

주: 스트레스 1=각국 스트레스 평균 미만, 2=각국 스트레스 평균 이상; 성역할태도 1=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미만, 2=각국 성역할태도 평균 이상. #p<.1, \*p<.05, \*\*p<.01, \*\*\*p<.001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의 정도나 직업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스트레스가 높거나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아내에게 더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비교 분석에 있어서 한국 남성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인도네시아 남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비해 한국의 아내구타율이 높았으며,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인도네시아에 비해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문화를 넘어 아내구타에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 요인에 주목하고, 아내구타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 남성들의 스트레스와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본 문제의 심각성과 보편성을 고려할 때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최근 가정 내 아내구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나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한 전사회적인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는 여성에 대한 학대적 행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아내구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내에 대한 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내구타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다른 나라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

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범세계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내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조사 대상국의 아내구타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의 영향 정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와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아내구타 실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6명 중 1명꼴인 16.7%의 남편이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회 이상의 폭력을 아내에게 행사한 것에 반해, 한국은 약 3명 중 1명꼴인 29.5%의 남편이 1회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아내구타율의 약 2배, 1985년도 미국의 가정폭력 조사(Straus & Gelles, 1990)에서 나타난 아내구타 발생률 11%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가정에서 아내구타비율이 매우 높으며,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아내구타에 대한 연구들이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아내구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듯이, 본 연구의 결과도 이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즉,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아내구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아내구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스트레스의 경험 정도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남성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 남성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미한 아내구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심각한

아내구타’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동일한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는 ‘경미한 아내구타’와 ‘심각한 아내구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남편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심각한 아내구타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경미한 아내폭력과 심각한 아내구타 모두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남성들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형태의 아내구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성역할태도와 아내구타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실시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남성들의 성역할태도는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한국 남성들이 보다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는 성역할태도가 ‘경미한 아내구타’와 ‘심각한 아내구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는 아내구타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및 성역할태도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여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시에 살펴본 결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러한 독립변인들이 ‘경미한 아내구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심각한 아내구타’에는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경미한 아내구타’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성역할태도와 교육수준도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아내구타’에는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남편들의 스

트레스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편들의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 모두가 아내구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아내구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남편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접근이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공고한 국가에서는 이를 변화할 수 있는 전사회적 개입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즉, 성공적인 예방과 개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과 개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한 성역할태도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가정 내 아내구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내 가정폭력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 내에는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이나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에 대한 기본적 인권침해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 바, 향후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각국의 아내구타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아내구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가정폭력에 대해 각 국가와 사회가 보여준 전략적 대응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상호간에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가정폭력, 스트레스, 성 역할태도, 아내구타, 한국과 인도네시아.

### 참고문헌

- 김인숙 · 김혜선 · 성정현 · 신은주 · 윤영숙 · 이혜경 · 최선화. 2000. 『여성복지학』. 서울: 나남출판사.
- 김재엽 · 이서원. 1997. “열등의식과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모형에 관한 연구: 영세 빈곤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3 : 71-93.
- 김재엽. 1998a. “스트레스 및 알코올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 빈곤 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 103-118.
- \_\_\_\_\_. 1998b. “한국 가정폭력실태와 사회계층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 133-155.
- \_\_\_\_\_. 1998c. “한국노인부부의 부부폭력실태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 노년학회』 18(1) : 170-183.
- \_\_\_\_\_. 1998d.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 115-139.
- 김재엽 · 최선희 · 장희숙 · 이근후 · 이명숙 · 김기환 · 박상언. 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재호. 2003. “세계여성 3명중 1명 학대 받는다.” 『조선일보』 11월 24일.
- 김현수 · 조선미 · 윤용장 · 이영미 · 송은하. 2000. “한국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의 유형화에 관한 예비적 연구.”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변화순 · 원영애 · 정숙경. 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임한순. 2000. “여성폭력방지 세계포럼 개막.” 『연합뉴스』 11월 24일.

Abell, N. 1991. “The Index of Clinical Stress: A Brief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for practice and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7 : 12-15.

Dibble, U. & Straus, M. A. 198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 71-80.

Farrington, K. 1980. “Stress and Family Violence.” In M. A. struss & G. T. Hotaling (ed.) *The Social Causes of Husband-Wife Violence*.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Gelles, R. J. 1974. “Etiology of Violence: Overcoming Fallacious Reasoning in Understanding Family Violence and Child Abuse.” In R. J. Gelles (ed.) *Family Violence*. New York: Sage Publications.

Hornung, C. B. 1981. “Stress Relationship in Marriage: Risk Factor in Spouse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 675-692.

Kim, J. Y. 1993. *Family Violence in Korean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Chicago.

Levinger, G. 1974. *Physical Abuse Among Applicants for Divorce*. New York: Harper & Row.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 63-71.

Rounsaville, B. J. 1978. “Theories in Marital Violence: Evidence from a Study of Battered Woman.” *Victimology* 3 : 11-31.

- Saunders, D. 1992. "A Typology of Men Batter: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 264-275.
- Spence, J. T. & Helmreich, R.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Austin, TX: Univ. of Texas Press.
- Steinmetz, S. K. 1977. *The Cycle of Violence: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Interaction*. New York: Praeger.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75-88.
- \_\_\_\_\_. 1980. "Social Stress and Marit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In C. B. Wright & R. Rieber (ed.)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347. Stanford, CA: HighWire Press.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the Closed Door: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York: Doubleday.
- Straus, M. A. &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uitor, J. J., Pillemer, K. & Straus, M. A. 1990. "Marital Violence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M. A. Straus & R. J. Gelles (ed.)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Whitehurst, R. N. 1974. "Violence in Husband-Wife Interaction." In Steinmetz, S. K. & Straus, M. A. (ed.)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Harper & Row.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s of Stress and Gender-Role Attitudes on Wife Battering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Kim, Jae-Yop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Choi, Soo-Chan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realities of wife battering which occurs in Korean and Indonesian families and to review the effects of stress and gender-role attitude on wife battering.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attempted by applying the same research method both in Korea and Indonesia. For the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mainly applied.

Wife battering rate in Korea turned out to be 1.8 times higher than in Indonesia. Also the stress level and patriarchal gender-role attitude of Korean 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Indonesian men. In particular, the overall wife battering appeared to be affected by the stress and gender-role attitudes in case of Korean family, while only the severe wife

battering turned out to be dependent on the assaulter's stress and gender-role attitude in case of Indonesian family.

Such results imply that stress and patriarchal gender-role attitude are not only the influential factors of wife battering regardless of region and race, but also the aspects that need to be watched with keen interest in order to prevent wife battering. Finally, this study calls for practical education or program which will manage the stress and change the gender-role attitude of men as the intervention.

**Key words:** family violence, stress, gender-role attitude, wife battering, Korea and Indonesia.